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9월 6일(금)
---(윤력 8월 4일)---
Пятница
6 Сентября 2024 г.
№ 35 (1210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9월 3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슬라와 광장.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남부 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 79주년 기념행사이자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9월 6일부터 8일까지 주지사 선거 진행

사할린주에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주지사 선거가 진행된다.

이번에 사할린주지사 후보로는 4명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정당 사할린지부에서는 웨제네예브 로만 세르게예비치, 러시아 통합당 사할린 지부에서는 리마렌코 알레리 이고레비치 현 지사, '정의로운 러시아-애국자-진실을 위한'정당 사할린지역 지부에서는 폴리친스키 와짐 알렉산드로비치, '러시아 연방 공산당'사할린지부에서는 아시흐민 파벨 게오르기예비치가 등록되고 출마한다.

사할린주 정부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지부, 협력 확대

사할린 주정부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가 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유리 쿨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장장이 서명했다.

이 협정은 과학, 연구, 과학 및 기술, 혁신, 전문가 및 정보 분석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구현에 대한 공동 작업의 확대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석유 및 가스 회사를 위한 로봇 시스템 및 장치를 만들고, 해산물 심층 가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어업 분야에서 식량공급 문제를 연구한다.

카잔 성모마리아 기적의 이콘, 9월 9일 사할린에 도착

9월 9일(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사할린으로 역사적인 모스크바 형식의 카잔 성모마리아 성화 이콘이 도착한다.

사할린 지역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스크바 및 전 루스 총대주교 키릴이 집례하는 예배에서 승리를 위한 전 러시아 기도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십자가 행진이 5월에 시작된 가운데 약 70개의 도시들을 통과하게 된다. 카잔 성모마리아의 모습은 러시아 수호자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기에 왕들과 위대한 장군들이 기도하여 시베리아 개척을 위한 개척자들을 인도하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이콘을 통해 적들로부터 러시아의 땅을 해방시켰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우리의 장병들을 도와주길 간구하고 있다.

17시에는 성탄 성전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의 니카노르 대주교가 주교구 신부들의 참여 속에 승리에 대한 기도회를 집례한다. 이날 성전은 22시까지 개방된다.

성탄 성전 예배실에서 9월 10일(화)에 니카노르 대주교는 성례를 거행하며, 9월 10일과 11일(수)에는 교구 성직자들이 경외하는 이콘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전승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념 행진 열려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9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축하행진을 개최했다고 주 정부 측이 전했다.

이날 축하행진들이 주내 전 지역에서 열린 가운데 대규모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슬라와(영광) 광장에서는 불멸의 성화에 헌화하고, 축하행진이 진행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행진 참가자들 앞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날 사할린의 주민들은 사할린과 쿠릴의 해방을 위해 싸우며,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추모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이름은 슬라와(영광) 기념비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들과 사할린 지역에서 평화로운 삶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도시와 마을을 복구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베테랑(참전용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러시아의 대의를 보호합시다."라고 주지사가 말했다.

이번 행사에 정부기관을 비롯해 종교계 대표들과 군관계자, 참전용사, 시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슬리자> 연감 10권이 증정되어 이 연감에는 대조국 전쟁의 참전용사들과 사할린 주민들에 대한 30개의 에세이들이 수록돼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와 그들 자손의 증언 및 이야기들이다.

이날 기념행사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들도 참가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대표들이 홈스크구역 포자르스코예촌(전 미주호 마을) 근처에 있는 한인 피살자 27인 추념비를 찾아 참배하였다. 이들은 6개월 아기를 포함해 평범한 한인들로 일본인의 손에 살해되었다. 사건 당시는 1945년 8월 20일 경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전승일 축하행사는 공연이 계획된 포베다(승리) 광장에서 20시에 진행되었다. 이에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러시아의 국민가수 올레그 가즈마노브가 공연을 펼쳤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이 전쟁에서 소련군 2천 명이 이상이 전사했다. 2020년 9월 3일에 처음으로 러시아 군사적 영광의 날로 기념했다.

(본사 기자)

선도직업훈련센터, 사할린에 개설

<전문화> 연방 기획에 따라 사할린에 선도직업훈련센터가 개설되었다고 사할린주 교육부가 전했다.

선도직업훈련센터에서는 지역 경제를 위한 미래 신세대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는다. 개소 축하 기념식에 주정부 왜체슬라브 알렌코브 부총재와 교육부의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이 참석했다. 기념식의 구빈으로 모스크바 직업개발연구소의 제1 부총장 니콜라이 스타리츠키와 다니일 수하노브 부총장이 자리를 빛냈다.

키르테와 사할린 교육부 장관은 "이 센터는 학교 학생들이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생들은 실습 준비로, 전문가들은 자질향상을 위해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매해 선도직업훈련센터에서 2만 명 넘는 사할린 주민들이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며, 그중에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을 위해 사회진출 계획을 준비하고, 여러 분야의 추가 기술을 교육하게 된다.

선도직업훈련센터는 '아이호르' 현대적인 비즈니스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강의실, 기획 작업을 위한 구역, 공동작업 공간, 대형 식당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간호사를 계속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끼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마카로브 병원에 57년의 세월을 바친 간호사 문영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연구들과 함께 마카로브를 찾았다. 지방에 갈 때 기회가 되면 신문에 소개할 만한 분도 취재하고 있다. 오랫동안 마카로브에서 한인회장을 맡은 고영순 마카로브 향토박물관 관장의 추천으로 문영자 씨와 만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한글 이름을 '문영자'라며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이 이름을 잘 모른다.”며 “다들 ‘루피나, 루피나 미하일로브나’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루피나’는 그가 초등학교 때 직접 지은 이름이다.

“이웃 사람들이 처음엔 저를 ‘파냐’라고 불렀는데 저에겐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루피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죠.”라고 루피나 선생이 말하였다.

지난 7월 중순에 그녀 만 75세의 생일을 맞이했다. 그리고 문영자 씨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마카로브 중앙구역병원에서 일해왔다. 57년이나 한 곳에서 일하며 55년간 안과 간호사로서도 경험을 쌓았다. 그는 주로 병원 산하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안과 같은 경우 1995년에 안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거의 혼자 진료소에서 안과를 지키고 있다. 가끔 중심지에서 출장 온 안과 선생이 있지만 그녀가 거의 모든 환자를 접수하고 있다. 물론 치료와 예방에 대한 경험은 엄청나다. 환자들에게 약 처방도 하고, 응급치료도 해준다. 안과 전문가가 유일하다 보니 휴일에도 가끔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쉬는 시간에 도와달라는 전화도 오고,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안과뿐만 아니라 요즘 몇 년 동안 이비인후과 간호사로서도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도 최근 3-4년간 의



사가 없어 간호사가 집무하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여태까지 일하죠.”라고 루피나 선생이 말하였다. 18살에 병원 접수실에서 기록을 하는 일을 맡았고, 일년 후는 치과에서 간호사도 우미로 일하기도 했다. 병원 사정으로 특히 휴가철에 여러 과에서 열심히 도왔다.

문영자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했다. 옛날 학교에는 학생 위생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손을 보고 위생을 확인하는 일을 했었다. 문영자 씨가 바로 이 일을 맡았다. 한번 40년 이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문영자 씨를 보면서 ‘너가 위생 검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문영자 씨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 갈 수 있는 허가가 뒤늦게 떨어졌다.

“보니까 대학들에서 이미 입학시험 기간이 끝났어요. 저 혼자 아니라 저처럼 뒤늦게 허가증을 받은 동포 아이들이 5명이었어요. 우리는 같이 일주일간 잘 놀고 집에 돌아왔죠.”라고 문 선생이 이야기를 이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취직하고 일하면서 그 당시 마카로브에 2년 과정 간호사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졸업자격증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전문 간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 동안 성실한 간호사로서 그녀가 일한 병원에서는 물론, 주두마 표창장, 지역 행정부에서 수많은 포상과 감사장을 받았고 연방 ‘노동 베테랑’메달도 받았다.

문영자 씨는 5남매가 있는 가정에서 맏이로 자랐고, 형편이 좋지 않아 어릴 적부터 부모를 도우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 먹거리가 모자라 이를 구하기 위해 걸어서 지방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니곤 했었다고 한다. 걸어서 가는 이유는 무국적자라서 내무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마카로브에서 포레치에 마을까지 걸어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당시 나이가 15살 쯤이었다.

16세 때는 과수원 종묘장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은 그녀와 어릴 적 친구와 했다. 아주 친했는데 애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군대 복무를 마친 후 자주 문영자 씨네 집에 들렀는데 어느 하루 문영자 씨의 아버님이 “너 왜 자주 우리 집 찾아와, 우리 딸 시집갈 나인데...” 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영자를 좋아한다며, 결혼하고 싶다는 뜻밖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사랑고백을 먼저 예비신부 아버지가 들었다며 문 선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10년 전까지도 건강이 괜찮았던 남편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 문영자 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때 시어머

니의 미움도 받았는데 대신 시아버지의 애정과 배려를 컸다고 한다. 아들을 낳은 후에야 시어머니에게도 가장 좋은 며느리가 되었다.

그녀는 일을 많이 하고 가볍게 움직인다. 미역, 다시마도 채취하고, 고비·고사리도 뜯고, 열매와 버섯도 따러 산에 간다. 살기 바빠서, 살기 위해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없다. 간호사의 일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해보았다. 경제가 무너진 90년대에는 옷 장사도 했었고(사실 장사가 잘 되었다), 제지공장에서 일했던 남편이 일을 잃었을 때 한때 연송어 어획작업도 했었다. 그 당시 생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생선이 보기도 싫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 100킬로그램의 말린 고사리를 업체에 납품한 적도 있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커 1933년생이신 어머니가 2000년에 한국으로 영주귀국 갔을 때 어머니를 챙기기 위해 3개월의 휴가를 받아 한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어머니를 돌봤었고, 장가 가지 않은 남동생도 챙기며 살았다고 한다.

여동생에게는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여동생은 딸이 이미 15살이 되었을 때 늦게 간호사 공부를 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의학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 여동생의 딸은 영자 씨의 집에서 자랐다.

항상 누군가를 챙기는 문영자 씨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그의 남자 친구도 일찍 아내를 잃은 상태였다.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 서로 친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챙기고, 서로 도와주며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함께 산에도 가고, 바다에 가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물론 문영자 씨에게는 아들, 그

의 가족(손녀, 손자, 며느리)이 아주 소중하다. 아들이 생물학 교사 자격증을 대학에서 받았지만 졸업 당시 교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어머니의 걱정을 덜기 위해 무역회사로 옮겼다. 현재 한 회사의 부사장인데 어머니는 계속 아들이 교육자의 꿈을 버린 것이 안스럽고 미안하기도 했다. 아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고 있지만 자주 어머니를 찾아온다고 한다.

“3주에 한 번 꼭 가족과 함께 마카로브를 찾아옵니다. 금요일에 와서 주말을 보내죠. 야외도 가고 제가 한 음식도 맛있게 먹습니다. 오지 못하면 꼭 연락하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아가죠. 손자 손녀와 시간을 즐겁게 보내죠. 특히 아쿠와시티의 아쿠아 파크를 좋아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함께 하고 물놀이도 하죠, 거기에 서 먹는 것도 좋아하죠.”라고 문 선생이 이야기한다.

성격도 활발한 편이라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다. 장기간 마카로브 한인회에서 활동하며, 한민족 문화 축제 준비에도 참가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한다.

“제가 조선학교 때부터 무용을 배웠어요. 학교 졸업 후에도 많은 행사에서 조선무용단 단원으로서 참가했죠. 1999년도에는 우리 무용단이 평양 4월 태평절 축제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도할 사람도 없고 하지 않아요.”라고 문 선생이 말했다.

문영자 씨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빠르게 움직이며, 아직도 기력이 있어 간호사직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하루하루를 아끼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자기를 표출하라>아트축제에 사할린 청년들의 참가 기대

<자기를 표출하라> 제14회 아트축제에 연령 14세-35세 까지 사할린의 보컬리스트와 음악 그룹들이 참가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청년주도청이 전했다.

참가신청서는 9월 2일(월)부터 접수하며, 심사에는 참가자들인 아마추어나 전문가들의 수준이 고려되며, 주최 측에서는 예선, 준결승, 결승 3단계로 경연을 진행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전 단계를 거치기 위해 2개의 음악공연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는 예선과 준결승 곡이고 다른 한 곡은 결승전을 위한 곡이다. 참가신청 마감은 9월 26일(목)까지며, 공식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ую молодежь позвали на арт-фестиваль «Заяви о себе»

Сахалинские вокалис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и музыкальные группы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14-м арт-фестивале «Заяви о себ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о 2 сентября. Также будет учтен и уровень участников – любитель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 Вс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ят три этапа - прослушивание, полуфинал и финал.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всех этапов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

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2 музыка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одна для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и полуфинала, вторая для финал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6 сентября. Подать ее можно по ссылке.

우글레고르스크에서 도시의 날에 유모차 행진

9월 14일 우글레고르스크에서 도시의 날 기념으로 <유모차 행진>과 <유아 마라톤>이 개최된다고 '우글레고르스크 뉴스'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유아 마라톤>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는 부모의 돌봄 속에 정해진 코스를 가는 것이다.

참가신청이 이미 이뤄진 가운데 9월 14일에는 <유모차 행진>이 진행되며, 부모들은 최대한 유모차를 창의적으로 꾸미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다.

행진 모임은 14시 30분 '췌트랄니' 경기장에서 이뤄진다.

В Углегорске в День города пройдет парад колясок

В Углегорске в День город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ют 14 сен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Парад колясок» и «Марафон ползун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Новости Углегорска».

В марафон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смогут малыши в возрасте от 2 месяцев до 6 лет. Под присмотром родителей им нужно будет преодолеть необходимую дистанцию. Заявки уже принимаются.

Также 14 сентября пройдет традиционный «Парад колясок». Здесь родители могут проявить всю фантазию и украсить коляски максимально ярко. Сбор участников в 14.30 на стадионе «Центральный».

노위알렉산드롭스크 구역 형성 140주년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에 따르면 노위알렉산드롭스크 구역 14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 지구 발전에 개인적으로 공헌한 주민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라두가(무지개)' 문화 회관에서 진행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왜채슬라브 코주호브 부시장은 환영사를 전하며 "오늘 우리는 노위알렉산드롭스크 마을 형성 140주년을 기념합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장 큰 계획 지구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오늘 노위알렉산드롭스크의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노위알렉산드롭스크 정착촌은 1884년에 형성되어 '포퓰스키에 유르티라' 불렸다. 이후 1947년에 정착촌은 노위-알렉산드롭스크 마을위원회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의 일부가 되었고, 1963년에는 아나와 지역으로 소속됐다. 그리고 1996년에 이 정착촌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계획 지구가 되어 현재 이 구역에는 1만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8면에 계속)

'사할린한인을 이산가족으로 만든 것을 사죄하라!'

사할린동포: 하바롭스크 일본 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

지난 3일(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맞아 사할린 출신으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수십 명이 주하바롭스크 일본 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이산가족을 만든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고 외쳤다.

시위자들은 일제의 항복 선언 이후 사할린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살 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는 한국, 러시아, 중국 국민들에게 비극을 안겨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자 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기리며 이 역사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진실을 밝히려고 합

니다."라고 극동·시베리아 고려인단체 연합회 백규성 회장이 전했다.

1910년 일본제국은 한반도를 병합하고 35년 동안 통치하다가 항복했다. 수십 년 동안 점령해왔던 사할린으로 한인들을 강제동원했다.

사할린 동포 2세인 타마라 월코와는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신 우리 조상들은 탄광에서, 벌목장에 일했고, 도로와 철도를 공사했고, 일본은 이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가라후토(사할린)의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역사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바롭스크 사할린한인 이산가족회 배이리나 회장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양심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용서해주세요.'라고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웨스찌-하바롭스크' 티비 보도프로그램에서 말했다.

(본사 기자)
(사진: 극동·시베리아 고려인단체 연합회 소속 사할린한인이산가족회 제공)

<섬-생선> 사할린 축제 폐막으로 대형 연어알 샌드위치 준비

9월 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10회 <섬-생선> 축제 폐막식이 거행된다.

현재 <섬-생선> 축제는 한 달 내내 진행되는 활기찬 행사로서 다양한 활동교실과 미식 마라톤 만남으로 구성된다. 지난 6년간 <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은 축제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는 3주 동안 일반 음식점들이 특별 요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의 9개 카페와 레스토랑이 미식마라톤에 참가했다. 전례대로 올해 축제에도 <가정요리> 요리대회가 진행되어 4팀의 가정이 정통 레시피를 따라 생선요리를 준비한다.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무료 과일바가 열려 과일과 사할린의 열매, 야생식물로 만든 과일커피를 맛볼 수 있다. 셰프-조리사 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위해 해산물로 만든 생선 수프를 준비하고, 축제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대형 연어알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막심 프로코피예프 요리명인의 '산둔 가미술' 특별요리를 맛볼 수 있다.

9월 3일은 러시아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전승일

9월 3일은 러시아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이다. 우리 사할린 지역으로서 이날은 대단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말엽부터 일본은 식민지 정복의 길에 나섰다. 일본은 먼저 대만 정복을 시작으로 페스카도레스 섬을 정복, 러시아의 사할린을 빼앗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며, 중국 영토로 진출하여 대규모 지역들을 강제 점령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공격적 정책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국제연맹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점령국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 가혹한 정책을 추진했고, 일본 국민이 아닌 민족은 차별을 당했으며, 착취를 당하고, 일본이 이들 점령국들로부터 자원을 탈취함으로써 인해 점령국의 국민들은 비참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 살았다. 중국에서는 종종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그 예로 1937년 난징대학살 당시 약 50만 명의 민간인이 일본군의 손에 살해되었다. 우리 또한 1945년 8월 남사할린 - 미주호, 카미시스카, 우시로, 티리코로 - 에서 자행된 몇몇 대규모 학살에 대해서 알고 있다.

1945년 2월 나치 독일의 파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소련군은 독일군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해방시키고, 소련의 적위대는 승승장구하며 베를린으로 진격했고, 반나치연맹국들은 알타회담에서 만났다. 정상들의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스탈린은 유럽 지역에서 종전 후 소련이 일본을 물리치는 전쟁에 나서는 것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포츠담 회담에서 확정된 이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후 조정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했다.

150만 명 이상의 장병들로 구성된 소련군은 3개 전선(자바이칼 전선, 제1극동 전선, 제2극동 전선)의 병력으로 만주 전략적 공격 작전을 훌륭히 수행하여 일본 관동군을 포위하고, 굴복시켰다.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략과 쿠릴 상륙 작전이 진행되어 전쟁은 소련 적위대의 전적인 승리로 끝났다. 9월 2일 일본은 지속적인 저항이 불가함을 깨닫고,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일제 치하에 있던 민족들은 해방을 맞았고,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은 하바롭스크 재판소와 도쿄 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소련은 이전 나치 독일과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알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의 조건을 이행한 소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평화롭고, 완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945년 9월 2일 소련 상임위원회의 법으로 9월 3일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로 선포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전쟁 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기념하는 날이자 군국주의와 침략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일은 소련군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민족들의 단결과 힘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승리는 전 세계에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의 왜곡을 막고, 20세기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자체의 올바르게, 정의로운 원인과 결과를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진 올라 역사학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나를 지우고 / 오세영

산에서 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산이 된다는 것이다.

나무가 나무를 지우면 숲이 되고, 산에서 산과 벗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이다.

나를 지운다는 것은 곧 너를 지운다는 것, 밤새 그리움을 살라 먹고 피는 초롱꽃처럼

이슬이 이슬을 지우면 안개가 되고, 안개가 안개를 지우면 푸른 하늘이 되듯

산에서 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이다.

<희생 Жертва>을 다시 관람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Андрей Тарковский의 명작이지요. 리마스터링 4K 버전이라 스크린에 집중하기에 한결 편해졌어요. 20대 때에는 그렇게도 어렵게만 느껴지던 철학적인 대사와, 이야기의 구조, 롱 테이크로 끌고 가는 카메라의 움직임 등이 이제서야 뭐든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영화지요. 영화사 통틀어 제일 훌륭한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희생 Жертва>을 뽑을 것만 같아요.

물론 좋은 영화야 많지요. <시네마 천국>이며 <언더그라운드>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멜홀랜드 드라이브> 등기가 막힌 영화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 최고의 영화감독은 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Андрей Тарковский였지요. 영화를 대하는 자세가 종교적이었거나 그가 남긴 일기 '봉인된 시간'을 읽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뭐가 달라도 좀 달라요. 단순히 샷과 씬의 개념을 넘어, 롱테이크로 잡아 펼쳐내는 그 연극같은 미장센을 음미할 때면, 제 시선도 그때 그때 다른 인물에 머무르거나, 해석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들러 이 어려운 영화를 함께 도전하면서 잠시나마 저 역시 이십 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한 덕에 신혼 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관람했던 영화. 이토록 훌륭한 영화를 누구 못지 않게 소중히 여겼기에 어쩌면 제가 지금 제 세계를 펼치기 위해 애쓰는 작가가 된 건 아닌지, 세상 일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영화 시청 중 저는 오세영 시인의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딘가의 흘러 듯한 알렉산더의 더할 나위 없는 연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타르코프스키 만세! Да здравствует Тарковский!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예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세요.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ы ждём извинений»: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Хабаровске пикетир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3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Дня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потомки корейцев, чьи предк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везены японскими оккупантами на Сахалин, провели пикет у консульства Японии в 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развернули плакаты с требованием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извиниться за разделение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годы войны.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извинений за содеянное, в том числе за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изошедшие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Японией капитуляции.

«Мы з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эти события коснулись народов Кореи, России и Китая. Мы помним эти трагические дни и передаём эту историю молодым, доносим до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авд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Владимир Бейк.

В 1910 году императорская Япония аннексировал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правила в течение 35 лет до капитуляции. С 1938 года японцы



стали проводить мобилизацию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для тяжелых работ на шахтах, лесоповалах и стройках на Карафуте (в те време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Тамара Волкова, участник пикета: «На шахте они работали и на лесоповале, дороги строили,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Они поднимали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назывался Карафуте. Вот такие истории».

Ирина Бя, участник пикета: «Понимаете, что такое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Есть закон совести. Если человек что-то сделал неправильно, он приносит извинения искренне и говорит: «Ну вот да, так случилось. Пожалуйста, простите». Мы ждем просто извинен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подгот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КОДВС)

В Корее прошла Всеми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 29 по 31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в Инчхоне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KOWIN 2024>, где собрались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со всего мира.

Конференция <KOWIN >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о в Корею по эгиде Министерства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детства (여가부) с 2001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в Инчхоне она собрала более 300 участниц из 23 стран мира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связей среди женщин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продвижения их ро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обществах.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пленарные сессии, форумы для женщин-лидеров и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мену опытом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Участницы обсуждали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ролью женщин-лидеров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обменивались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а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л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и расширения влияния кореек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Важным моментом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известных женщин-лидеров, таких как Ли Су Ин, основательница компании Epupa, которая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 опытом в создан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для детей с различны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В ходе панельных дискуссий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кореек, их интеграц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общества и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KOWIN 2024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участвовала Син Ен Сук,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емь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на выступила с речью, подчеркивающей



важн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реди кореек по всему миру для повыш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лия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Ежегодно в этом форум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и женщины-корейки из России -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популяризируют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Корею в своих странах. Россию, в частности,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ли региональ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семи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женщин-кореек Ольга Хай,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Че Гым Сун, директор студ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Инбок»; меценат Квон Хен Дя. Интересы кореек стран СНГ представила Жанна Тен,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есомненно, что данный форум ста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уник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наладить связи с другими корейками со всего мира,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й опыт и узнать о новых инициативах и программах,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ддержку и развитие сообщества.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Православная миссия в Сидими

Просвещ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к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царской России, самым тесным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было связано с началом и развитием православной миссион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 церковной и духовной жизнью. Церковь и школа были неразрывными, ибо именно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и были, как правило, единственными грамотными людьми в русских деревнях, умевшими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Особое место в истории миссионерства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и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инородце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занимает село Сидими — одна из первых корейских деревень Суифунского округа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В 1867 г. на р. Сидеми было 11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ств, 54 человека. Через 11 лет в ней числилось 30 фанз, 136 ж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28 крещённых в православии. В 1897 г. в списке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округа Посьетского участка Янчихинской волости упомянуты деревни Верхнее Сидими и Нижнее Сидими. В конце 19-начале 20 вв. в этой местност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ли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помимо которых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лись золотодобычей.

В 1901 г. в метрической книге Адиминской церкви отложились записи о крещении 195 корейцев д. Сидими, из них 103 — дети, 92 — взрослые. В 1905 году в деревне проживали 74 семьи, из них православных корейцев: 102 мужчин и 81- женщин; язычников — 79 мужчин и 74 женщин. В 1915 г. в ней насчитывалось 175 дворов. Сидими стал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лений на рус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торой было немало детей. К моменту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в Петербурге и «триумфального шествия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часть корейцев села Сидими относилась к зажиточным крестьянам, имевшим свои земельные наделы и крепкие хозяйства. Поэтому в гражданскую войну не все сидиминцы поддержали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Однако большевики, выдвигавш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лозунги: мир солдатам, земля крестьянам, равенство всех народов, привлекли на свою сторону массы людей и смогли установить новые порядки.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морья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поддержало большевиков. В 1922-23 гг. секретарем созданного Сидиминского сельсовета Сидими стал Ни Моисей Алексеевич, коренной житель села. Через два года на волне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в Сидими был образован колхоз «Память Ленина», в Верхнем Сидими образовался колхоз «Авангард». Оба колхоза занимались в основном рисоводством, которо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имело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1932 г. в связи с укрупнением Сидиминский с/с вошел в состав Верхне-Сидиминского с/с. В состав Усть-Сидиминского с/с вход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а: оленесовхоз «Сидими», созданный в 1922 г. на базе хозяйств дворянина Янковского; рыбколхоз «Большевик», созданный в 1930 г. на базе рыболовецких артелей; рыбзавод «Сидими»; песчаный карьер; ТОФ; Примторг; база рыбзавода «Песчаный»больница; школа; связь. В 1930-1933 г. председателем Усть-Сидиминского с/с был Тё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дед Де Юрия Григорьевича — одного из авторов статьи.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Сидиминского мисси-



онерского стан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ркви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лся на рубеже 19 и 20 веков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причём как в православном клире, так и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сельской общине. Однако намерениям и планам не суждено было осуществиться в связи с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ой и тяжёлыми ее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ля царского самодержавия. Сказались также события первой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05-07 гг. Об учреждении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 д. Сидими сохранились весьма скудные сведения. Самое раннее упоминание о ней относится к 1913 году, то есть е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о время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ой связи уместно выражение эмоциональных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чувств отца Василия (Огай) сказавшего: «Потрясающая нынешняя война,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уют и корейцы, горящим углем открыла корейцам их духовные очи, и она неожиданно сыграет в религиозно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благодетельную роль. Участвуя в гигантской борьбе народов и встречаясь лицом к лицу с культурными силами народов, они не могут не изменить своих взглядов на миропонимание. Они там закаляют свой характер и выковывают в груди твердые желан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что они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вольют новую струю в жизнь стана и всколыхнут долгое болото обывательской жизни, в это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го сомнения. Воины единодушно просят своих родных молиться за них Владыке мира, и жены, и дети их возносят богу горячие молитвы...»

Церковь в Сидими называлась «Спасская миссионерская» и развёрнутые о ней сведения относятся к 1915 году. В фонд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ГАПК) сохранилось немало доку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ее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архиве хранятся метрические книги Сидиминской миссионерской церкви за 1915, 1916, 1917 и 1922 гг. В одной из них содержится первый брачный обыск, подписанный отцом Федором датированный 15 мая 1915 г. В метрической книге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консистории Сидиминского стана о рождении за 1917 г. записано, что таинство крещения проводили священник Фед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им и вр. и. д. псаломщика Дионисий Цой.

В выпусках журнала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е епархиальные ведомости» (в дальнейшем сокращённо — ВЕВ) регулярно сообщалось о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в корейских миссионерских станах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церковно-приходских школ, а также о планах епархии в расширении и укреплении православной веры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овой пространств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ему адресу: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дата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ПРИГЛАША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на встречу с Мариной Тен - визуальным художником, дизайнером и коммерческим иллюстратором. Марина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кончила университет Донсо(Пу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между аналогом и цифрой, между великолепием и повседневностью, между традиционным и современным, между изобразительным искусством и медиа-артом. Художник, который исследует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грани, чтобы открыть новые миры и идеи."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13 сентября в 17.30**,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онференц-зал, 9 этаж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посетит РК 6-7 сентября

6-7 сентябр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посетит Сеул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Юн Сок Ёле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лидеры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а также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и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Это будет 12-я по счёту встреча Юн Сок Ёля и Фумио Кисиды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К и Япония нормализовали отношения, восстановив «челно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использовали люб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Фумио Киси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кинет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поскольку он решил отказаться от переизбрания на пост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что он намерен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Япони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кто станет новы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Открылась первая сесс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22-го созыва

2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первая сесс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22-го созыва. В первый день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ыступил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ак Чхан Дэ, а во второй день выступит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ху Гён Хо. С 9 по 12 сентября депутаты заслушают отчёты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9 сентября перед ними выступят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 внешнюю и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10 сентября –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и безопасность, 11 сентября – за экономику, а 12 сентября – за соци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разование и культуру. 26 сен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а с 7 по 25 октября пройдёт парламентская инспекция.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и оппозиция создадут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орган

Лидеры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Хан Дон Хун и Ли Чжэ Мён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здать совместный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орган по обсужд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1 сент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й,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на парламентском уровне, чтобы разрешить затяжной кризис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ызванный забастовкой врачей. Они приз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возможному росту спроса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о время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Лидеры двух партий согласились также обсуд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шения 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блем на фондовом рынке, поддержку ключевых экспортных отраслей, усилия по облегчению долгового бремени д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домохозяйств,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усилия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способны работать нормально

Хотя некоторые трудности и существуют,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способны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боту в нормальном режим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2 сентября в интервью радио SBS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Проблемы выходят за рамки отделений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и касаются последующего лечения, но они существовали ещё до забастовки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Их можно решить с помощью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О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период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будут открыты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примерно четырёх тысяч больниц. Чо Гю Хон отверг предложения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ан Дон Хуна отложить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до 2026 года, чтобы урегулировать нынешний кризис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Это задержит достижение баланса между спросом и предложением врачей,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повтори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рыто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медицин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Gallup Korea: Рейтинг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23%

Лишь 23%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работу Юн Сок Ёля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1.002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ведённого с 27 по 29 августа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Полож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снизилась на 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составил 30%,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 31%,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 7%, Партии новых реформ - 2%, Прогрессивной партии - 1%. 26%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отдали предпочтение ни од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сетите веб-сай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изуч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и агентства Gallup Korea. **RKI**

Юн Сок Ёль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их успехах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В четверг, 29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ь обратился к нации, а затем провёл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для журналистов.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 обрисовал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сво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а также дальнейшие задач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Лидер РК при этом не скупился на похвалы в свой адрес и в сторон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ступление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ое продлилось около сорока минут, можно услов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три части. В первой он рассказал о достигнутых успехах, во второй признал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а в третьей указал на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решить.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решил убедит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то им при его правлении жить стало гораздо лучше.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нфляцию удалось сдержать, темпы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 одни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среди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жалеет денег и сил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местному бизнесу. Также было сообщено о возрождении ядерной энерге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успехах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усили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населению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что позволило снизить темпы роста цен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В сфер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РК, также наблюдаются лишь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Он с гордостью сообщил, что при его правлении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гла укрепить союз с США, нормализовать и улучшить связи с Японией и выстраивает с "позици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и уважения"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Про Россию Юн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 но зато вспомнил про заключени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союза" с Нидерландами, получение крупных заказов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странах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вой актив он также записал проведе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аммитов с главам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я провёл 197 саммитов с лидерами 113 государств", - с гордостью отметил он. Особенно Юну запомнились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жо Байденом, а также трехсторонние саммиты в формате РК-США-Япония и РК-Китай-Япония.

Интересно,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некогда весьма важное, было обойдено вниманием. Впрочем, это и понятно - в межкорейских связях сейчас полный застой, а отнош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эпитетом "полная заморозка, игнор и эпизодические угрозы друг другу".

Конечно, говорить только об успехах и достижениях, а также постоянно хвалить себя, когда местные СМИ полны жалоб на внутри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и трения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о бы, пожалуй, неверно, а потому Юн неохотно и скупно признал определ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включая невысо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а также увеличение совокупного долг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ремени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опи-

санию те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нужно решить. Они были названы "четырьмя главными реформами".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сти в сферах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Юн при этом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не намерен искать легки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х и не существует" и намерен избрать "пусть сложные, но необходимые пути". Политологи это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ли как декларацию намерений Юн Сок Ёля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давливать" непопулярные реформы, а также не отступать в конфликтах с профсоюзами и врачами. Впрочем, судя по предыдущим действиям президента, компромиссы сложно назвать его сильной стороной, Юн склонен идти до конца, будучи уверенным в своей правоте, а потому такие достаточно жесткие заявления были ожидаемы.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ильно придется изменить и сферу обязательных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й, котора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казалась в кризисе во многом из-за сниж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Юн упрекнул предыдущ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ые, по его словам, отложили непопулярные решения, потеряв тем самым время, и заявил, что "не намерен соглашаться на шаги, которые отложат проблему на 8-9 лет, а собирается сделать то, что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решит проблему". В переводе на понятный язык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орейцев ждет рост доли отчислений, которые они обязаны передавать в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качестве крайне острой проблемы, которую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Юн Сок Ёль также упомянул низкую рождаемость и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Тут тоже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эта проблем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ала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неприятных ассоциаций, связанных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амые низ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в мире. "На реш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были уже потрачены сотни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но она так и не решается. Конечно, кто-то может сказать: "Да ладно, давайте смиримся, откажемся от попыток ее решения и будет просто импортировать рабочую силу, которая нам так необходима", но мы ведь понимаем, что это не то, что стоит делать, как стоит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роблему", - отметил он.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го шага в сторону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го решения президент намерен создать в рамк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играть роль центра, координирующего усилия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по част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будут предприниматься объединенные усилия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обеспечении жилье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образовании и прочих областях. При этом Юн попросил парламент страны, где доминирует критически настроенная к действиям лидера Кореи оппозиция, поддержать его шаги и одобрить план по созданию нов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равославная миссия в Сидим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К примеру, в рубрике Хроники епархиальной жизни поднимался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онастыря около Сидими: «Признано, желательным, устроить монастыри: прежде всего в Посьетском участке, близ Сидими; затем, в долине Судзиэхэ, где сейчас существует Архирейская заимка; в Харбине, при кладбищенской церкви и, наконец, на Имане». Как известно, монастырь в Сидими не был построен и остался в истории, лишь как один из обсуждавшихся вопросов планирования церков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июне 1916 г. IV противоязыческий Миссионерский съезд отметил: «Весьма желательно иметь для всех корейских станом, в которых отцы миссионеры незнакомы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духовника из миссионеров, зн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сему избраны для Посьетских миссионерских станом о. В. Лян и Ф. Ким, а для Суйфунских — о. В. Огай, с возмещением расходов на их поездки из церковных сумм в размере действительной потребности». Еще од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ъезда касалось учреждения 1-ой полной стипендии и 2-х полустипендий при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церковно-учительской школе, которые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лучшие корейские ученики.

В 1916 г. на прошедшем в Янчихинском миссионерском стане Благодичинском съезде отмечалось, что «чуть ли не во всех корейских фанзах сейчас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молитвенник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 также Св. Евангелие, а во многих храмах корейцы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лушать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своем родном языке». Согласно публикациям, в «В. Е. В.» в Сидиминском миссионерском стане в 1916 году насчитывалось 1133 православных корейца, в том числе 596 мужчин и 537 женщин. Годом ранее было крещено 38 корейцев раз-

ных возрастов (18 мужского и 20 женского пола) и 129 младенцев, в том числе 55 мальчиков и 74 девочки. В ноябре 1916 г. прошёл XI епархиальный съезд духовенства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епархии.

Одно из заседаний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тяжелому положению духовенства епархии, как по причине войны, так и по чисто местным условиям жизн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отмечались следующие: «...1) непомерная дороговизна продук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2) большинство работ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могавшему духовенству, призвано в войска,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ходов лишилось топлива, а в иных случаях квартир, вследствие обеднения общества; 3) неурожай, а главное наводнения трех последних лет, лишили доходов духовенства от земли, заставили лишиться последних, скопленных про чёрный день грошей».

Через смены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период установления большевистской власт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и иностранной интервенции) расшатывала и рушила фундамент, на котором покоилась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Антирелигиозная пропаганда; отде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от церкви, а церкви от образования; гонения и репрессии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ей вели к победе воинствующего атеизма, положившего конец православному миссионерству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От церкви Сидими не осталось следов, как собственно, нет и самих деревень Верхнее и Нижнее Сидими. Не сохранилось даже Сидиминское кладбище. Сотни подобных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прекратили своё существование ранней осенью рокового 1937 года.

Юрий Де, независим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Герман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gazeta-rk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79-ую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амые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шествие.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парада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егодня мы вспоминаем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боролись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ех, кто отдал жизнь за наши земли, их имена здесь, на мемориале Славы. Мы отдаем дань уважения всем, кто добыл эту победу и начал строить мирную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Возрождать города и села,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растить детей. Это вы, наши уважаемые ветераны. Мы продолжаем ваше дело. И все вместе защищаем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Слава народу-победителю!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духовенств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етераны и жители города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Затем по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прошли парадные расчеты.

- Это была наша заслуженная победа. И это должна знать молодёжь, всё, что был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закрывается вся наша победа. И нуж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нашему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о героях, которые сражались тогда, и, конечно, о тех, кто делает это и сейчас,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Хайлов, ветеран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Также в этот день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10-го тома альманаха «Победители». В сборнике собрали очередные 30 очерков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рассказанные либо самими очевидцами событий, или их потомка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детьми, внуками. В этом году в книгу вошли рассказы о нескольких героя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торые являлись внуками и правнуками ветеранов ВОВ.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продолжилось в 20:00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Здесь состоялась празднич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священная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иглашенный гость — Олег Газманов. Прозвучали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произведения о Родине,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любимые хиты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Напомним,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звернулись решающие сраж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отдали жизнь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В 2020 году 3 сентября впервы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как День воинской славы Росс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 был принят в Госдуме РФ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епутата Госдумы Георгия Карлова, сахалинских властей, депутатов и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Аллеи памяти и мемориалы в честь героев СВО появят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активом ветеранских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онно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и доклад 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планы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а по завершению – десятки вопросов от активистов и волонте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стенах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встречи стали поддержк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и и памяти павших героев. В ходе обращени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важнейшие направления в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В преддверии годовщины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споминают всех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когда-то защитили родную землю, а сегодня их предки продолжают дела своих отцов и храбро сражаются в зоне СВО.

- Мы – великая страна и наши воины – великие воины. Наши ребята поднялись и пошли в окопы, на фронт и делают все ради победы. Другие наши ребята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ередовую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евой дух солдат, наши женщины одни из первых поехали вслед за мужьями и сыновьями налаживать постав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другого груза,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мы отправляем регулярно самолетами. И наши дети тоже пойдут на врага, сомнений в этом нет, потому что они смотрят на своих отцов и дедов, кто сегодня в окопах. Они живут среди нас, они наши, кровь от крови, плоть от плоти. И этот дух передается в семьях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Вот что такое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КСВО)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мемориал памяти павших героев СВ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планами по созданию аналог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т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котором проводятся захоронения погибших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воинского долг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создание этого мемориала, так как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ка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так 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амяти о наших земляках, героически погибших на поле боя. Какие есть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подобн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просила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 Да, построим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 четко ответил Ва-

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хе уже найден подходящий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уже высажена рябиновая аллея, дальнейшие рабо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акже проведут в 2025 году. В Долинске аллею Славы сформируют на городском кладбище. Работы завершат в октябре. В Томар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ладбища установят Стеллу и разобьют аллею.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прозвучал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на тему событий по случаю 80-летия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ивисты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редстоящими реконструкциями боев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в Рошино.

- 80-я годовщина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особенно значим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амять о Героях,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Кроме того, в 2025 году продолжим создание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в Рошино, - сообщ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также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лучения процедуры по протезированию зубов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и добровольцев.

-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бесплатное протезирование зуб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ряду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частники СВО остаются неохваченными. Мы предлагаем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включении в категорию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льготное протезиров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СВО, - обратился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ВО «ЗЕВС».

- Если осколок залетел или получено другое боевое ранение, мы точно поможем.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процедуры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бесплатно. Кому нужно, тому сделаем, - отв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ин участник встречи пожаловался на то, что не может записаться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 Иногда надо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а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Лично я и другие товарищи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ращались с этим вопросом в различные инстанции. В минздраве сказали, в четвертой поликлинике есть окно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ветеранов, когда я туда пошел, сказали, что нужно открепиться в своей поликлинике, встать на учет в этой, а чтобы попасть к специалисту, нужно сначала к терапевту, он посмотрит, надо ли направлять дальше. Надо это дело по-другому решить. И когда мне первый раз позвонил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я попросил записать меня к врачу, она не смогла. Зачем мне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е может помочь мне с конкретной проблемой? - рассказал мужчина.

- Мы вас уже записали. А того «Проводника здоровья», который вам все это наговорил, надо немедленно заменить на того, кто поможет вам, - строго поруч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также подключился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сообщил, что ситуация взята на его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Виновные будут наказаны.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 базе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создано отделение, которое работает именно с ветеранами. То, что вам сказали, неправильно, я разберусь. Любой ветеран из любой точки области может обратить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люс этот случай - это как раз те проводники, с которыми мы уже расстались – порядка 40%. Я возьму ваши данные, лично подниму все разговоры, мы точно решим этот вопрос,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у нас работают 700 обученных «провод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ботятся о людях, чтобы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и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и решить любой другой вопрос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подытожил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обравшихся также интересовали вопросы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есть немало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детей еще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Помимо «Разговоров о важном»,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профильные лагерные смены по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е, уже со второго класса школьники учатся собирать беспилотники и управлять ими, на базе «Восток» создан проект «СахалинТех Алаид».

- Начиная со 2 класса в школах будут уроки по беспилотникам. Сегодня школьники печатают детали на специальном принтере. Это мы раньше что-то пилили лобзиком, а они применяют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Мы занимаемся сборкой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именяем их в мирной жизни. У нас развивается целое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 части БПЛА, и дети будут этим заниматься с ранних лет. Есть и техника, и тренеры,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ьно обучены и занимаются этим вопросом. Это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ведется ежедневно, - поделил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о немало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Все они также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по каждому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Выставку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амках ВЭФ откроет флешмоб в честь регионов ДФО

Флешмоб «Время жи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ткроет выставку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3–8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2024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рганизатор выставки –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Флешмоб пройдет 3 сентября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выставки. Здесь прозвучит композици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лова которой написал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поэт-песенник Илья Резник. Участники флешмоба вынесут на сцену флаги регионов ДФО и развернут большой российский триколор. Начало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 в 10.00.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разработаны уник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и «Гектар». Многие из них находят применение в други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и. Заработали 824 предприятия.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л 4 трлн руб. Создано почти 140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Это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как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так и для тех, кто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 свой трудовой путь и формирует свою карьеру. А рост экономики приводит к росту ро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ы, оказыва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наше общее будущее. Я искренне убежден: гла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лю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лжен быть рост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 2024 пройдет 3–6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площадке кампус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эти дни выставка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а 7 и 8 сентября она откроется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Организатор ВЭФ –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Ше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городов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форуме «Развитие малых городов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й»,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Калуге, объяв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разу шесть гор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лучили феде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оврем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явятся в Холмске, Корсакове, Аниве, Макарове, Куриль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чнется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бщий объ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 500 млн рублей.

На трети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Корсаковки выделено 150 млн рублей. Там появитс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квартал и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приобщения к русским традициям и культуре.

В Холмске благоустроят территор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арка «Зеленая гавань», а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Спящая красавица». Каждый из проектов получит по 100 млн рублей федерального гранта. По 50 млн рублей выиграли заявки от Анивы, Макарова и Курильска. Там обустроят территорию парка «Заречье», создадут сквер «Северный ветер» и пешеходную зону.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лавный упор был сделан на семейный отдых. На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форума «Развитие малых городов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обозначил, что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собо отмечает роль семьи в жизни страны, подчеркивая, что именно вокруг нее и детей строя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действия и реш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 Уверена, что воплощение этих проектов не только изменит внешний вид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ов, но сделает их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и и уютными. Это не просто парки и зоны отдыха – это полноформат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еобразуют пространство, определяют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я для все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влечения существ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что, несомненно, максимально позитивно влияет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и комфорта жизни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на островах.

-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является больше красивых и комфор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а это новые точки д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это повышение индекса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несомненно, это довольные жители, для которых мы благоустроиваем наши территории,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ктория Дол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города с численностью населения до 2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осе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высокую вовлеченность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в том числе, обеспечивает достой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конкурс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тали 18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На их реализацию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ыделено около 1,7 млрд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주광역시, 고려인을 품고 말하다

호남대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학술포럼 및 공연·전시 개최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지난9월 5일(목)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학술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올 2월 출범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서울, 광주, 대구, 인천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지난 8월 27일에는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첫 포럼이 열린 바 있다.

광주 학술포럼은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광주 고려인마을,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고려대 아시아이주연구센터, 대한고려인협회,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동북아평화연대, 인천고려인문화원, 지구촌동포연대, 재외동포연구원이 주관하고 재외동포청, 광산구청,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이번에 광주에서 열린 포럼의 주제는 '고려인의 역사와 인문학'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 집단농장, 민족운동, 이주사 연구현황, 그리고 공연예술, 민족문화 전승 전략, 한글문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포럼의 결과물들은 국내 여러 기관이 고려인 및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

수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광주 포럼에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추진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총리가 특별히 방문해 기조강연을 했다. 그리고 박상철 호남대 총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환영 인사를 했다. 이어 이형석 전 국회의원이 축사, 이병훈 전 국회의원, 임채완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포럼이 열린 국제회의실에서는 월곡고려인문화관 '결'과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의 공동 주최로 고려인 인문 전시 '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 사진전이 열렸다. 포럼이 끝난 후 5시30분부터 포럼장 맞은편 랄랄라 극장에서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가 공연되었다.

임채완 공동위원장은 "이번 광주 학술 포럼은 고려인·한인의 이주역사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려인 사진전과 공연도 동시에 열리는 국내 유일의 종합행사인 만큼 관심있는 모든 시민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국내동포 정착지원, 새 아젠다로 삼겠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첫 재외동포 정책자문회의 열고 입장 표명
자문위원들 다양한 의견 개진

재외동포청은 이상덕 청장 주재로 지난 8월 30일(금)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위원장)를 포함해 고상구 베트남 K&K 트레이딩 회장, 이진영 인하대 교수, 강성철 연합뉴스 재외동포 전문기자, 최병천 월드코리아 신문 편집이사, 이영환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대표, 신연정 차세대위원이 참석했으며, 미국 거주 중인 재외동포 김영길, 최미영 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국내거주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내동포 정착지원은 재외동포청이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동포청은 외국인 대상 이

민 정책과 차별화된 국내 동포 맞춤형 정책과 토달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자문위원들은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시의성과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동포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박인기 위원장은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중요과제로서, 동포청이 언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 △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한, 위원들은 국내동포의 출신국가, 연령 등이 다양한 만큼, 동포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



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국내동포 정책은 국내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소통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K-뷰티' 수출상담회 성황리 열려...184억원 상담

재외동포청·인천시 개최 행사에 13개국 해외바이어 19명 참가 45억원 계약 체결 성과도... "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해줘 감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K-뷰티 수출상담회'에서 184억원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8월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행사로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일대일 비즈니스 사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회에는 13개국 19명의 해외바이어와 국내 45개 기업이 참여했다.

상담회 취합 결과, 총 113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84억 원어치의 상담과 함께 계약 예상액 45억 원 상담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5억 6천만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각 기업의 특성과 바이어의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맞춤형 상담'으로 참가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국내 기업인은 "해외바이어들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계약을 논의할 수 있는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해 준 재외동포청과 인천시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기관은 수출상담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K-뷰티 확산과 한인비즈니스 동반 성장 전략'을 주제로 '2024 세계한인비즈

니스포럼'도 열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리더인 재외동포 경제인 약 200분을 모시고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발족한 바 있다"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오늘의 행사"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황효진 인천 글로벌도시정부무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은 성장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도시, 인천공항과 함께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제3의 개항을 통해 글로벌 톱 10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재외한인 경제인분들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와 연결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국화장품협회 회장인 권용수 (㈜L&K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2024년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 수출 시장도 다각화돼 무려 175개국에 수출한다"며 "K-뷰티 산업은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고 역설했다.

행사를 공동개최한 재외동포청과 인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외동포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조선과 한과 고려

우선 조선이라는 이름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편의상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조선, 북한이라고 하는 조선이 있습니다. 최초 국가의 이름부터 지금까지 조선이라는 이름은 줄곧 살아있습니다.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에 조(朝)가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아침의 땅, 해 뜨는 땅, 동쪽 땅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달이 고조선의 수도였음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에서 아침을 '아사'라고 하는데, 우리말 아침과 같은 어원으로 보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두 번째 이름은 한입니다. 위쪽에 부여(夫餘)가 있을 때 아래쪽에는 한(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야기할 때도 부여어계와 한어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은 다시 마한, 변한, 진한으로 나뉩니다. 후한서 동이전에 따르면 마한이 54국, 변한과 진한이 각각 12개국으로 모두 74개국에 해당합니다. 전체 국토의 넓이를 사방 4천 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쪽의 영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책에 고구려의 넓이를 사방 2천 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삼한의 영역은 훨씬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 역사책에는 한국(韓國)이라고 쓰고 '카라쿠니'라고 읽는다는 점도 주목되는 일입니다. 이 이름을 가락국이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자로는 한이라고 썼지만 소리로는 가락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흥미로운 추론도 가능합니다. 마한(馬韓)의 경우에 마(馬)는 말이라는 뜻이고, 한은 가라였다면 말가라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갈이라는 이름과 말가라가 닮았다는 점입니다. 삼국사기의 백제편에 보면 위례성을 말갈이 위와 아래에서 계속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례성을 한강 유역이라고 본다면 말갈이 위와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만약 마한을 말갈이라고 읽는다면 언어학적으로는 가능한 논의로 보입니다만, 역사학적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한이라는 이름은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바로 조선이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한국이 된 겁니다. 상해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해방 이후도 남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왕건이 세운 나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고구려를 잇는 나라라는 점과 일본서기 등에서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는 것으로 봐서 고려와 고구려는 같은 이름입니다. 고려는 세계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널리 퍼진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코리아라는 명칭은 바로 고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들거나 통일을 논의할 때, '고려'나 '코리아'라는 이름을 쓴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통일 후의 국가명은 고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과 한과 고려는 재외동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중동포는 스스로를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이름으로 봐도 북한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미동포는 스스로를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민회가 있는 곳은 모두 한국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라는 명칭은 구소련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는 고려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할린의 경우에는 고려인과 한인의 명칭을 함께 쓴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할린 동포의 남한으로의 영구귀국이 많았다는 점과 사할린 동포 대다수의 고향이 남한 쪽이라는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를 나타내는 이름은 더 있습니다. 우선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는 조선과 고려를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이야기입니다.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였다는 점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라는 이름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일본에서 '쿠다라'라고 하는데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한편 신라는 '사람, 새 땅'과도 어원적으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나라 이름은 여전히 궁금중 속에 남아있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14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최대 계획 지구로 성장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활발하게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노워알렉산드롭스크 구역 수장인 안드레이 마야소브가 말했다.

노워-알렉산드롭스크에는 165개의 상품매개업과 생활 서비스업체를 비롯해 3개 보건기관과 2개 문화회관, 3개 유치원, 2개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구역 형성 기념일을 맞아 노워-알렉산드롭스크 주민들을 위해 '라두가'문화회관과 지역 예술단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루스키 켈렘' 앙상블의 공연과 현대 히트 및 레트로-히트 디스코텍, 다양한 활동교실, 아크와그림(페이스 페인팅) 행사가 열렸으며, 주제별 포토존과 박람회도 열렸다.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отметил 140-летие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честь 140-летия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жителей, внесших в развитие планировочного района личный вклад.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сцене у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 Сегодня мы отмечаем 140 лет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поселения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Сейчас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 подчеркну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вице-мэр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ячеслав Кожухов. - Но безусловно главная ценность -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творят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будуще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Поселение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в 1884 году и называлось Поповские Юрты. В 1947 года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вошел в соста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как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сельский совет, а в 1963 году стал частью Анивского с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 1996 году эта территория стала планировочным районом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десь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6 тысяч человек.

- За 140 лет небольшое поселение выросло в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ланировочный район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годня территория активно застраивается,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территори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Андрей Маясов.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действует 165 предприятий торговли и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3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3 учреждения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2 школы.

Для жителей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прошел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коллективами города и ДК «Радуга», выступил ансамбль «Русский терем»,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дискотека современных и ретро-хитов, организованы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лощадка с аква-гриммом. Также работа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фотозоны и ярмарка, добавили.

통계청 전문가들, 사할린 주민들이 어디에 돈을 가장 잘 쓰는지 밝혀

사할린 통계국이 2024년 상반기 7개월간 사할린의 유료 서비스시장을 조사한 가운데 사할린의 주민들은 다양한 서비스에 지출을 좀 줄이고, 그럼에도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절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세한 내용이 국가 통계청 공식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할린 주민들의 유료 서비스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감소했고, 지출비용은 354억 루블리에 달했다. 그러나 생활서비스시장이 증가세로 나타난 가운데 전년 대비 1.6% 상승한 48억에 달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편안함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아파트 수리나 차량 유지 및 수리, 일상의 수고를 전문가에게 맡기길 선호하고 있다.

Специалисты выяснили, где сахалинцы тратят деньги чаще всего

Сахалинстат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рынок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 острове за первые семь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тали немного меньше тратить на различные сервисы, но при этом не эконо-

мят на бытовом комфорте. Подробности разместил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осоргана.

В целом объем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селению сократился на 0,4%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цы потратили на них 35,4 млрд рублей.

А вот рынок бытовых услуг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рост. Их объем увеличился на 1,6%, составив 4,8 млрд рублей. Очевидно, сахалинцы не готовы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удобства и предпочитают довер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ремонт квартир, уход за автомобилем и другие бытовые хлопоты.

사할린 국립대 <피크> 스포츠-관광 클럽, 대학생들의 가입 기다려

사할린 국립대 <피크>스포츠-관광 클럽이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학생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클럽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관광 준비, 안전, 응급처치, 항토역사, 나침판과 지도로 목적지 찾아가기, 당일 및 수일에 걸친 하이킹, 사할린 섬들 탐방에 따른 강연이다.

주최 측은 프로그램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궁금한 점은 전화번호(89147461268(니나 알렉산드로브나))로 문의 바람.

Студентов приглашают вступить в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уб СахГУ «П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удентов приглашают вступить в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уб СахГУ «ПИ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грамме обучения - лекции по тур подготовке,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врачебная помощь, краеведение, ориентирование, однодневные и многодневные походы, а также экскурсии по острову.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ещают, что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следует 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89147461268 (Ни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